

다윗 시리즈(VII)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20:1-11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88 장/통 88 장)

1.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귀를 관포지교(管鮑之交)라 합니다. 그 사귀는 자신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나에게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누구인지 나눠 봅시다.
2. 좋은 우정의 관계는 신앙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계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진 관계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서로를 대하기에 좋은 관계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3. 목동 다윗과 왕자 요나단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깊은 우정 가운데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하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예절, 예의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다윗은 신의(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가 있는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아 달라는 요나단의 부탁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신의가 있어야 하고 신의를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 하셨는지 나눠 보세요.